

의 무변성의 경우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이 가장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투자계획을 바꾸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5.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경제적 복지 평가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별에 따라 구분한 4 집단의 경제적 복지평가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그리고 사후 검증 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가계경제복지, 국가 경제복지, 가계경제만족도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불만형 집단의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국가경제에 대해서도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국가경제복지에 대한 평가는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소극적·불만형 집단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6.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가계경제지표의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별에 따라 구분한 집단의 가계경제지표 상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그리고 사후 검증 방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분석결과 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보험료납입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통적으로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이 다른 세 유형의 집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적극적·가족추구형 집단이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에서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가계재무비율의 차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계재무비율지표 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과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계소득중 월보험료납입액수로 측정한 위험대비지표, 금융자산중 총부채 비율로 측정한 부채대비지표, 가처분소득중 저축액수 비중인 저축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의 위험대비지표 수준과 가처분소득 중 저축액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으나 자산중 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고 가처분소득 중 저축액수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1가지 가계재무비율지표에 대한 네 집단 전체의 평균과 11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준거기준을 <표 9>에 제시하였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준거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결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금융자산 중 부채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과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의 경우 금융자산 중 총부채가 많아 준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마도 이들 집단에 속하는 일부 특정 가계의 빚이 다른 가계보다 월등히 높거나 금융자산이 상당히 낮아 전체 집단의 평균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 시키고 유사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집단의 가계재무위험관리, 가계경제구조, 재무포트폴리오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대졸자,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적극적·가족추구형,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과 고졸자의 경우 소극적·불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소극적·불만형 집단의 재무안전관리 지향성 수준이 낮은 편이고,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은 안전지향적 투자행동을 보이며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이 투자계획을 바꾸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소극적·불만형 집단의 가계경제복지 및 국가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자신이 속한 가계경제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복지에 대한 평가는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넷째,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의 근로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보험료납입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가족추구형 집단이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에서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보험납입액수가 가장 낮고,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으며, 저축액수가 가장 낮아 재무건전성에서 가장 심각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준거기준으로 볼 때도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의 경우 금융자산 중 총부채 지표에서 재정안전성의 준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의 경우도 이 집단에 속하는 일부 특정 가계

의 경우 부채가 극단적으로 많아 재정적 심각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라이프스타일은 가계재무위험관리, 가계경제구조, 재무포트폴리오에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가계재무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소득수준이나 지출 등 가계경제 상황 이외에 개인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도 중요하므로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고졸자의 경우 소극적·불만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소극적·불만형 집단은 재무안전관리지향 수준이 낮고, 가계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수준도 낮으므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리교육 및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을 대상으로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보험납입액을 높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형태의 지원이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집단의 경우 남성, 대졸자가 많이 속해 있으며,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서 안전지향적이며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높으며,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수준이 높고, 저축수준도 높으며 보험납입도 적극적이거나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아 재무건전성에서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집단이라고 하겠다. 이는 아마도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관련 정보제공 및 각종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혜경(1990).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 김경자(200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43-51.
- 김경자, 박명숙, 정운영(2002). 가계 재무 상태와 재무관리행동 성과에 따른 재무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28.
-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 김성민, 길재욱, 김현수(1999). 생활재무관리. 경문사.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순미, 양정선(1994). 가계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45-54.
- 김순미, 양정선(2004). 도시근로자 가계의 지출, 저축성보험, 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37-51.
- 김연정(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98 학술발표회 자료집, 37-63.

김영숙, 김지현(2003). 사이버주식투자자의 투자행태유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4), 105-125.

김인숙(2003). 충북지역 가계의 재무관리 실태 및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39-52.

김정숙(1996). 주부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의식 및 저축동기가 가계의 저축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2), 245-259.

김학주(2004).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109-131.

김학주(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김효정(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6.

박주영, 최현자(1999). 자산계층별 가계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93-206.

문숙재, 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문숙재, 김순미, 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문숙재, 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분석-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09-120.

박명숙(2003). 가계의 재무위기 대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관련변수. 대한가정학회지, 41(11), 49-60.

박주영, 최현자(2002).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계포트폴리오 변화유형 및 각 유형별 가계특성 분석: IMF 경제위기동안의 재무의사결정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51-162..

박진영(2007).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25-44.

박진영(2008). 저출산가계의 재무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679-692.

박진영, 김영숙(2007).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75-87.

박진영, 문숙재(2004). 가계 재무전략 유형별 재무성과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65-175.

박진영, 문숙재(2004). 가계 재무전략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1999년과 2000년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85-95.

범수인, 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217.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성영애(2000). 가구주 직업이 가계의 부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9(1), 21-32.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1), 39-52.

성영애, 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 219.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양민애(1994). 가계 위험관리에 관한 신고-고령화사회를 앞두고. 보험학회지, 43, 341-363.

양세정(1997). 가계저축의 영향요인에 대한 시계열분석, 가정문화연구(상명대), 11, 3-13.

양세정(1998). 주부취업상태와 가계저축포트폴리오, 가정문화연구(상명대), 12, 1-13.

양세정(2000). 맞벌이 가구의 부채보유행태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13, 61-80.

양세정, 이영호(1996).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2), 201-215.

여윤경(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위험자산 선택행동. 응용경제, 10(3), 51-74.

여윤경, 김진호(2007). 한국가계의 은퇴자산 적정성 판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금융연구, 21(2), 1-30.

여윤경, 정순희(2004). 가계의 주식투자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1-21.

오만숙, 현승미(2009). 한국국민의 가계 금융부채에 대한 체감도 분석. 응용통계연구, 22(2), 297-307.

이성림, 성영애(2007).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 및 유형별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19(6), 2483-2504.

이승신, 배미경(2003). 가계재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한미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1(9), 105-120.

이은미(2002). 가계의 부채수준 및 투자포트 폴리오 구성행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이은실, 최현자(199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2.

이은영, 허은정(2005). 부채가계의 연체행동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6(1), 73-95.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2004). 재무비율로 평가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 소비문화연구, 7(3), 59-84.

임병진(2002). 소비자 재무설계의 주식투자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5(3), 147-156.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정미선, 계선자, 강혜경(2008). 도시주부 가계재무관행동의 변화지향성에 따른 가계재무건전성 및 재정만족도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91-403.

정순희(2003). 금융자산수준별 가계부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45-57.

정순희, 김현정(2002). 라이프 스타일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비문화연구, 5, 2, 107-128.

정영숙(2006).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거시경제 요인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19(6), 2483-2504.

정운영(1996). 도시가계의 투자행동: 결혼초기와 중기의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운영, 한경미(2004).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의 비상자금 적정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5(1), 23-37.

정운영, 황덕순(2002).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건전성-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2), 115-130.

정주원, 박명희(2006). 맞벌이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6), 129-140.

정홍주(1996). 알기쉬운 보험상식. 21세기 북스.

조동필, 양세정, 배미경(2007).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33-348.

주소현(2008). 종업원 재무교육과 은퇴설계, 소비자학연구, 19(1), 73-91.

주인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경욱, 박미연, 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

- 회지, 26(1), 149-163.
- 채은석, 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 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 최윤지,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지은, 정순희, 여윤경(2005).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소비자학연구*, 16(10), 55-71.
- 최현자, 성영애(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35-251.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한민희, 신상근, 안성아(2000). 금융고객의 위험태도와 위험대응구매행동. *경영학연구*, 29(3), 337-352.
- 허경옥, 백은영, 정순희(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3-13.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홍향숙, 이기춘(1999).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57(9), 39-56.
- 홍향숙, 이종혜(1999). 개인, 가계, 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2-24.
- Alpert, M. I. (1974). Personality and the determinants of product choi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9, Feb. 89-72.
- Bajtelsmit, V., & Bemas, A. (1996). Why do women invest differently than me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1-10.
- Cordell, D. M.(1996). Fundamentals of financial planning. The American College.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5). *Consumer behavior*. 8th. ed., Dryden.
- Garman, E. T., Fo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Houghton Mifflin Company.
- Grable, J. E., & Lytton, R. H.(1998). Investor risk tolerance: Testing the efficacy of demographics as differentiating and classifying facto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1), 21-31.
- Sung, J., & Hanna, S. (1996). Factors related to risk toleranc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1), 11-20.
- Warner, N., & Cramer, S. (1995). Saving behaviors: first wave baby bumma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 57-67.
- Weagley, R. O., & Gannon, C. 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131-154.
- Xiao, J. J. (1996). Effects of family income and life cycle stages on financial asset ownership.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1), 21-30.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
성별	남자 여자	81 (44.0%) 103 (56.0%)
가계월소득 (M=377.39 S.D.=491.70)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이상	53 (28.8%) 46 (25.0%) 54 (29.3%) 31 (16.8%)
연령 (M=38.43 S.D.=10.55)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47 (25.5%) 59 (32.1%) 46 (25.0%) 32 (17.4%)
가족수 (M=3.37 S.D.=1.29)	2인이하 3인 4인 5인이상	14 (8.9%) 37 (23.6%) 83 (52.9%) 23 (14.6%)
대졸여부	비대졸 대졸	53 (28.8%) 131 (71.2%)
결혼여부	미혼 기혼	57 (31.0%) 127 (69.0%)
주택소유여부	비소유 소유	102 (55.7%) 81 (44.3%)
취업여부	비취업 취업	40 (21.9%) 143 (78.1%)
전문직 여부	비전문직(비취업포함) 전문직	152 (86.9%) 23 (13.1%)

참조: 무응답으로 인해 변수에 따라 표본수가 차이가 있음.

<표 2> 조사대상자의 가계경제지표의 특성 (단위: 만원)

변수 / 집단	평균	표준편차
가계근로소득(년)	4,528.75	5,900.44
금융자산	7,203.57	13,681.03
실물자산	52,167.77	229,558.50
부채	4,267.39	16,831.47
월저축	87.78	91.10
월생활비	206.88	206.63
월부채상환액	18.82	47.43
월보험료	36.62	47.80

참조: 금융자산=예금+적금+보험료+갯돈+빌려준돈+주식

참조: 실물자산=부동산(주택+토지+건물+전세 및 월세)+회원권

참조: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표 3> 라이프스타일 관련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내용	평균	요인 적재치	Eigen (설명력)	신뢰 계수
적극성	· 나는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 나는 친구 등 모임이나 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07 3.33	.57 .52	1.07 (10.47)	.51
삶만족	· 나는 현재의 나의 삶에 만족한다.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52 3.72	.70 .73	2.45 (20.72)	.70
사회관심	· 우리사회의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 나는 사회문제에 나 나름대로의 의견이 강하다.	3.35 3.23	.67 .64	1.95 (18.39)	.71
가족지향	·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 여가/취미활동은 가족과 같이 해야 한다.	3.78 3.55	.60 .58	1.47 (14.47)	.47

<표 4> 라이프스타일 요인 유형별 소비자 집단의 분산분석 및 Duncan 검증

군집		집단 1 소극적·불만형 (46/194=23.7%)	집단 2 적극적·가족추구 형 (58/194=29.8%)	집단 3 소극적·비사회추 구형 (19/194=9.7%)	집단 4 적극적·사회추구·만 족형 (71/194=36.5%)	분산분석 (F값)
적극성 요인	평균 D	5.10 a	6.15 b	4.77 a	7.63 c	32.91***
삶만족 요인	평균 D	5.69 a	7.89 b	7.77 b	8.14 c	29.27***
사회관심 요인	평균 D	5.86 b	5.98 b	4.22 a	7.83 c	35.38***
가족지향 요인	평균 D	6.17 a	8.82 c	6.44 b	6.97 b	47.38***

*** $p < .001$

참고: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5>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 검증

변수 / 집단	집단 1 소극적·불만형	집단 2 적극적·가족추구형	집단 3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 4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카이검증 (x제곱 값)
성별 남자	13(7.1%)	26(14.1%)	3(1.6%)	39(21.2%)	8.49*
여자	33(17.9%)	32(17.4%)	6(3.3%)	32(17.4%)	
학력 고졸	21(11.4%)	15(8.2%)	3(1.6%)	14(7.6%)	9.56*
대졸	25(13.6%)	43(23.4%)	6(3.3%)	57(31.0%)	
취업 미취업	9(4.9%)	17(9.3%)	2(1.1%)	12(6.6%)	2.99
취업	36(19.7%)	41(22.4%)	7(3.8%)	59(32.2%)	
주거 비강남거주	34(18.5%)	49(26.6%)	7(3.8%)	55(29.9%)	1.86
강남거주	12(6.5%)	9(4.9%)	2(1.1%)	16(8.7%)	
직업 비전문직	35(20.0%)	53(30.3%)	6(3.4%)	58(33.1%)	5.54
전문직	7(4.0%)	4(2.3%)	3(1.7%)	9(5.1%)	
주택 비아파트거주	21(11.4%)	13(7.1%)	3(1.6%)	22(12.0%)	6.42
아파트거주	25(13.6%)	45(24.5%)	6(3.3%)	49(26.6%)	
연령	39.33 a	38.43 a	38.00 a	37.92 a	.17
소득	296.26 a	336.72 b	294.44 a	473.69 c	2.55*
가족수	3.63 a	3.24 a	3.33 a	3.31 a	.85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6>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가계재무위험관리의 차이 검증

변수 / 집단	집단 1 소극적·불만형	집단 2 적극적·가족추구형	집단 3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 4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분산분석 (F 값)
안전지향성(4문항)	12.73 a	13.32 ab	13.00 ab	14.60 b	4.38**
위험수용성(3문항)	7.32 a	7.51 a	7.22 a	7.73 a	1.70
투자계획불변성(2문항)	5.82 ab	5.91 ab	5.11 a	6.59 b	3.28*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7>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주관적 경제복지 평가 차이 검증

변수 / 집단	집단 1 소극적·불만형	집단 2 적극적·가족추구형	집단 3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 4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분산분석 (F 값)
가계 경제복지	3.10 a	3.82 b	4.11 b	3.98 b	9.17***
국가 경제복지	5.60 a	5.94 ab	6.88 b	6.46 ab	3.09*
가계경제만족도	4.95 a	6.67 b	6.88 b	6.71 b	11.01***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8>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가계경제지표의 차이 검증 (단위: 만원)

변수 / 집단	집단 1 소극적·불만형	집단 2 적극적·가족추구형	집단 3 소극적·비사회추구형	집단 4 적극적·사회추구·만족형	분산분석 (F 값)
가계근로소득 (월평균)	296.26 a	336.72 ab	294.44 a	473.69 b	1.95*
금융자산	5297.23 a	6727.72 ab	2448.22 a	9385.25 b	1.98*
실물자산	19031.96 a	41755.17 ab	16166.67 a	86705.63 b	1.96*
부채	2636.95 a	6600.00 a	1111.11 a	3818.30 a	0.63
월저축	55.54 a	78.70 ab	38.88 a	114.52 b	5.29***
월생활비	216.84 a	201.41 a	176.66 a	208.73 a	.114
월부채상환액	21.09 a	12.41 a	15.56 a	22.99 a	.58
연간 보험료	298.95 a	396.62 a	369.33 a	574.30 b	2.43*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9>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가계재무비율의 차이 검증

		변수 / 집단	집단 1 소극적·불만형	집단 2 적극적·가족 추구형	집단 3 소극적·비사 회추구형	집단 4 적극적·사회 추구·만족형	전체평균 (준거기준)	분산분석 (F값)	
안 정 성 지 표	가계 수지	월생활비/ 월가계소득	.63 a	.54 a	.58 a	.56 a	.57 (<0.9)	.08	
	비상 자금	금융자산/ 월생활비	46.80 a	69.97 a	16.17 a	46.88 a	52.63 (>1)	.50	
		금융자산/ 월가계소득	20.34 a	16.27 a	5.76 a	16.41 a	16.89 (>1)	.52	
	위험 대비	월보험료/ 월가계소득	.07 b	.07 b	.01 a	.10 b	.08 (0<and<.2)	2.06*	
	부채 대비	월부채상환액/ 월가계소득	.02 a	.06 a	.30 a	.05 a	.05 (<.25)	.23	
		총부채/금융자산	1.76 a	1.12 a	444.73 b	99.27 a	60.85 (<10)	1.92*	
		총부채/총자산	.16 a	.12 a	.04 a	.08 a	0.1 (<0.8)	.90	
	성 장 성 지 표	저축 성향	연총저축액/ 연가처분소득	.09 ab	.14 b	.01 a	.16 b	.13 (>0.1)	2.17*
		투자 성향	실물자산/총자산	.51 a	.52 a	.67 a	.58 a	.55 (<0.9)	.63
			투자자산/총자산	.01 a	.04 a	.01 a	.04 a	.03 (.05<and <.1)	1.18
유 동 성		금융자산/총자산	.48 a	.46 a	.32 a	.41 a	.44 (>0.1)	.53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같은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참고: 준거기준은 가계재무상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임.